

보도 일시	즉시 보도 가능	배포 일시	2022. 9. 7.(수)
담당 부서 <총괄>	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	책임자	과 장 서진희 (044-200-5610)
		담당자	사무관 이기채 (044-200-5616)

우리나라 전 연안 고수온 특보 해제

- 피해 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신속한 복구 지원 추진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9월 7일(수)부로 전남 함평만, 충남 천수만, 제주도 연안에 내려져 있던 고수온 주의보를 해제한다. 이로써 우리나라 전 연안 해역의 고수온 특보가 해제된 것이다.

제11호 태풍 ‘힌남노’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남 함평만 등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져 있던 해역을 포함해 우리나라 전 연안 해역의 수온이 지속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어 고수온 특보를 모두 해제하게 되었다.

지난 7월 6일(수) 전남 함평만, 경남 사천만 등 전남 내만과 경남 내만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비상대책본부와 현장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고수온 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해왔다. 이러한 노력으로 고수온 특보기간은 64일로 특보체계가 마련된 2017년 이후 최장 기간을 기록*하였으나, 피해는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**하였다.

* 종전 최장 기간 43일('18, '21) / ('17)32 → ('18)43 → ('19)22 → ('20)22 → ('21)43 → ('22)64

** ('21) 569어가, 1,900만 마리 → ('22) 96어가, 110만 마리(9.7 기준)

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“올해 고수온이 역대 최장 기간동안 이어졌지만, 현장 어업인들의 노력으로 지난해에 비해 피해가 줄어들었다.”라며, “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피해 원인을 조사하고 재해대책비 등 피해복구를 지원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	책임자	과 장 서진희 (044-200-5610)
		담당자	사무관 한성민 (044-200-5614)
			사무관 이기채 (044-200-5616)
	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	책임자	과 장 정래홍 (051-720-2210)
		담당자	연구관 한인성 (051-720-2230)
			연구사 이준수 (051-720-2231)
	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과	책임자	과 장 황형규 (051-720-2410)
		담당자	연구관 남보혜 (051-720-2420)
			연구사 최 진 (051-720-2431)

